

## 영등포구 대방초등학교 방문

어린이들이 모든 위협에서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해야

과거에는 어른들이 어린이들의 기를 꺾지 못하게 하는 여러 생각과 제도가 있었고 이 때문에 어린이 날을 지정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가정마다 사정이 좀 다르긴 하지만 요즘은 부모님들이 어린이들을 너무 귀하게 생각하는 가정이 많아 과보호에 대한 걱정을 할 정도로 집에서 대우를 받습니다.

그런데 집밖에 나가면 온갖 위험한 상황들이 우리 어린이들에게 있습니다. 가정에서 내 아이만 소중하게 감싸안으면서 우리 사회, 국가적으로 어린이들을 위험 속에 방치했다는 반성을 하기 시작했고, 그 반성이 쌓여서 정부가 나서서 일을 해보자는 취지로 지난 5월 5일 ‘어린이 안전원년’을 선포했습니다.

정부가 정성을 기울여 돈도 많이 들여 제도와 환경을 바꾸고 정부 뿐만 아니라 학교 선생님, 경찰, 소방서 함께 여러 일을 할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많이 좋아지리라고 생각합니다. 이 과정에서 좀 불편한 일도 있겠지만 우리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 참으면서 함께 해야 합니다.

이런 정책이 말로만 끝나지 않고 끝까지 성공하도록 대통령이 관심을 갖고 하나하나 챙기겠습니다. 국무총리실에서도 직접 나서 챙길 것입니다. 교통

안전뿐만이 아니고 가정에서의 어린이에 대한 폭력이라든지 그밖에 여러 가지 위협에 대해서도 이제 어린이들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학교교육 중 일상생활에서 기본적인 소양, 자기안전을 지키기 위해 해야 될 행동요령을 교육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다음에는 건강한 시민으로서의 질서 지키기 교육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린이들도 스스로 어른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배우고 실천해야 합니다. 실천하지 않으면 어른들이 아무리 노력해도 그 효과가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명심하고 열심히 배우고 실천해줬으면 합니다. 규칙을 잘 지켜야 합니다. 배운대로 또박또박 실천하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뒷날 뭐가 될까 생각하는 것은 다음의 문제이고 지금 여러분이 착하고 훌륭한 어린이가 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지금 하는 일에서 제일 착한 사람이 되면 나중에 어느 방향으로 가든 성공할 수 있습니다.